today ganghwa
강화투데이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2024년 12월 15일 제 76 호

화도면 화도를 밝게 비출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박용철 강화군수, 탄핵 가결 후 긴급 간부회의 개최

모든 행정력 동원해 안정화에 힘써 줄 것 당부

긴급 간부회의

긴급 간부회의

박용철 강화군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하면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박 군수는 군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동요하지 않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안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조치 사항으로는 ▲공무원 필수요원 비상소집, 정위치 근무 ▲읍·면 핫라인을 통한 군 동향 신속파악 ▲경보발령체계 상시 가동 태세 유지, 유사 시 군민 안전을 위한 신속·정확한 경보 상황 전파 ▲마을 방송 및 문자 등을 활용한 홍보로 주민 혼란 발생최소화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하에 상황관리 철저 ▲읍면별 비상연락망 및 주민신고망 유지 ▲주민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점검 등이다.

박용철 군수는 "불안한 국제정세와 경제침체, 혼란한 정치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위기다. 우리 강화는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 역사를 가졌다. 7만 군민이 힘을 모으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강화군이 군민들의 든든한 보루가 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INDEX | 1면~8면 • 강화군소식 | 9면 • 강화인천뉴스 | 10~11면 • 역사문화기행 | 12면 • 오피니언 | 13~14면 • 훈훈한세상 | 15면 • 건강참살이 | 16면 • 동네가꿈이(광고)

박용철 군수,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 운영 본격화

군민소통 제 2공약 실천을 위한 첫발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1일 강화읍사무소에서 제1회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을 개최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10여 명의 강화읍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은 개인적인 고충에 대해 군수와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 경로당 신축 등 마을숙원사업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강화군청 관련 팀장들도 함께 배석하여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문제들은 바로바로 처리 방안을 안내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동 군수실'은 기존 읍면이 민원의 접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 것을 넘어 직접 군수와 관련 부서장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 및 상황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군은 내년 12월까지 월 1~2회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운영할 계획으로, 참여하고 싶은 군민은 주소지의 운영일이 정해지면 당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면담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상담을 끝내고 나온 한 민원인은 "지자체에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 다르게 이동군수실을 통해 군수님을 직접 만나 평소 고충을 상담하고 나니 답답한 속이 좀 풀린다"며 "군수님이 군민소통을 위해 많이 노력하는 것 같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찾아가는 군수실 운영만으로 군민들의 모든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군민소통의 작은 출발이라는데 의의가 있을 것 같다"며 "군수실은 항상 군민들에게 열려있는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접수된 민원은 향후 강화군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상세하게 민원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은 내년에도 4월부터 연말까지 모든 면을 순회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제19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개최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강화군 자원봉사자의날 기념행사

강화군 자원봉사자의날 기념행사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지난 3일 강화문예회관에서 '제19회 강화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한양수) 주관으로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연간 100시간을 넘는 자원봉사자 등 우수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표창을 수여했으며, 2부 행사는 초대 가수의 신명 나는 공연을 통해 봉사자들의 그간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

박용철 군수는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이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아낌없는 봉사 정신 덕분이다"며, "앞으로 강화군은 취약계층의 돌봄과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양수 센터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봉사자분들은 나눔과 이웃사랑 실천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들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화군자원봉사센터는 2000년 설치된 이래 20여 년을 관내 봉사 현장의 선두에서 17,0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뜻을 함께하며 토탈 자원봉사의 날,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찾아가는 이불 세탁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강화군 구석구석에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최벽하 기자

박용철 강화군수, 여유정항 종합발전 건의

해양수산부, 2025년 10억원, 2026년 54억원 국비 투입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강화군 방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강화군 방문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어유정항(국가어항)에서 김재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만나 '어유정항 종합발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어류정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2015년 국가어항으로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오랜 세월 갯벌이 퇴적되어 국가어항 기능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조속한 어항구역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용철 군수는 어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김재철 청장을 어류정항 현장에서 직접 만나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 군수는 "국가어항인 어유정항은 우리군의 자랑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어항 건설 후 9년이 되다보니 갯벌이 점차 퇴적되어 준설이 시급하고, 선착장 설치 및 물양장 부지 환경 정비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산재해있다. 신속하게 국비가 지원되어 우리 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어업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오늘 군수님께서 건의해 준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날 박 군수와 김 청장은 현장점검과 함께 어업인, 수협 등과 간담회 자리를 갖는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한편, 그간 군은 어유정항 정비 및 준설 등을 위해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해왔고, 그 결과 2025년 유지준설비 10억원, 2026년 54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해수부는 2025년 상반기 바로 발주하여 7월경 본격적으로 준설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2024년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친목과 화합의 장 마련

새마을지도자대회

강화군 새마을회(회장 조인술)는 11일 명진부페에서 '2024년 강화군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용철 군수와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내빈 및 새마을지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단체 및 유공자 표창, 새마을장학생 장학금 수여,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최우수단체 영예는 교동면 협의회가 안았으며, 길상면 부녀회, 송해면 부녀회가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이외 33명의 개인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으며, 새마을장학생 8명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됐다.

조인술 강화군새마을회장은 "지난 1년간 강화군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새마을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강화군 새마을회는 내년에도 나눔, 봉사, 배려 정신을 바탕으로 강화군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계신 새마을지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도 지도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과 화합의 강화군을 위해 각종 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화군 새마을회는 여름김치 나누기,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사랑의 연탄나누기 등 나눔문화 확산, 불우이웃돕기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공동체 정신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강화군, 송년맞이 뮤지컬 갈라쇼 성료

강화 문예회관을 꽉 채운 관객들의 열정적 호응

강화뮤지컬 갈라쇼

강화뮤지컬 갈라쇼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지난 5일 강화문예회관에서 진행한 '2024년 강화 뮤지컬 갈라쇼'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6회째를 맞는 뮤지컬 갈라쇼는 행사 전부터 주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며 일찍부터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인 차지연과 이지훈의 풍부한 가창력으로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졌으며, 준비된 1시간 30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다채로운 공연 구성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명곡을 대중적이고, 예술성 있게 재구성하여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강화군의 연말 문화행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군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기획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공연은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신 군민분들을 응원하고, 강화군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준비했다."며, "내년에도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강화군을 만들기 위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단위 최초 '대상'수상

강화군,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5년 연속 수상

우수한 회계 역량 인정 받아

회계대상 대상 수상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13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제7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지난 5년간 회계대상에서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며,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는 한 단계 더 도약해 대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투명한 회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회계 역량을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이어온 모든 공직자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쉽게 재정정보를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과 재정운용 효율성, 그리고 혁신적인 재정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정성과연구원 등이 후원한다.

- 최벽하 기자

강화천문과학관, '송구영신 행성관측회' 개최

올 연말, 태양계 여러 행성 한번에 관측 가능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새로운 야간 관광명소인 강화천문과학관에서 태양계 주요 행성 관측 최적기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송구영신 행성관측회'를 진행한다.

12월 중순부터 내년 2월 초까지, 18시~21시 사이 초저녁 시간대에 동쪽 지평선부터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지평선까지 '화성-목성-천왕성-해왕성-토성-금성'을 한 번에 모두 볼 수 있다. 특히, '화성-목성-토성-금성'은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하다.

이 시기에 강화천문과학관을 방문하면 천체망원경을 통해 ▲화성의 붉은 표면과 북극의 극관 ▲목성의 선명한 줄무늬와 4대 위성 ▲토성의 고리와 위성 타이탄 등을 자세히 볼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행성집중관측 ▲스마트폰 천체사진 촬영하기 ▲천문력을 활용한 2025 천문현상 팝업 강의(네이버 예약) ▲천체투영관 특별 프로그램 ▲라이브 스케치 체험 ▲인스타그램 인증 이벤트 및 사진 인화 ▲우주비행사/산타 코스튬 체험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

팝업 강의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없이 진행되며, 관람료는 기존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행사 기간 이후에도 태양계 행성 대행진이 펼쳐지는 2월 초까지 강화천문과학관을 방문하면 관측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화천문과학관(☎ 032-933-910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말은 태양계 여러 행성을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다"면서, "강화천문과학관에서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겨울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힘차게 행진하는 행성들처럼 멋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228억원 지급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지급 단가에 따른 면적직불금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3일부터 1만 38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228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4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농업인 및 농지 자격요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11월 1만 38농가, 농지 1만 670ha를 지급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천~5천㎡ 범위의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농촌 거주 및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지급대상 농지 면적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상 기후 등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추경 예산안 등 안건 심의·의결

제2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박용철 강화군수 시정연설

강화군의회(의장 직무대리 한승희)가 지난 2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비롯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 개의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후 4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내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살피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강화군의회 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은 한 해도 최선을 다해 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강화군,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1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 행사'에서 우수 지자체 표창을 받았다.

올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수행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3개의 평가지표, 8개 항목을 기준으로 사업 운영 실적 및 업무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복지분야 등 유관기관과 더욱 협력해 마음건강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내년에도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사업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해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과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7월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의뢰서나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농기계은행 서부분점 준공식 개최

서부권역 농업인들의 숙원

농기계은행 서부분점 준공식

농기계은행 서부분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4일 하점면 망월리에서 서부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농기계은행 서부분점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용철 군수를 비롯해 한승희 강화군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각 기관·사회단체장과 농업인 1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농기계은행 준공을 축하했다.

농기계은행 서부분점은 29억 이상을 투자해 대지면적 6,000㎡에 관리동, 보관창고, 세차장 등 4동을 신축하고 쟁기, 논두렁조성기, 고구마 순제거기, 굴삭기 등 농기계를 비치해 서부지역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근거리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서부분점 준공을 계기로 농기계은행이 6개소로 확대되어 하점·내가·양사지역의 농업인들이 그간 겪어온 농기계은행 이용 불편을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용철 군수는 "농기계은행 서부분점이 문을 열면서 지역 농업인이 편리하게 임대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어 농가의 경영비 절감 등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 서부분점(☎032-934-4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화군,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6억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미납시 가산세 부과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6,623건, 26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거나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수협 총 7개의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본세 45만원 이상 체납 시, 1개월 경과 시 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3,833명 모집

전년보다 300여명 증원, 역대 최대 규모

노인일자리 활동 모습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83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보다 사업비 21억원이 증액된 154억원을 투입하고, 308명을 증원해 3,833명의 어른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은 강화군노인복지관과 강화군노인문화센터 2개 기관에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분야별로 ▲공익활동 3,470명 ▲역량활동 344명 ▲공동체사업단 19명을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공익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소득과 무관하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강화군노인복지관은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강화군노인문화센터는 12월 9일부터 12월 27일까지로, 불은면· 길상면·화도면·양도면 거주 어르신은 강화군노인문화센터, 이외 지역 어르신들은 강화군노인복지관에 신분증, 등본, 증명사진,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어르신들은 2025년 1월 안전교육 수료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사업별 주요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활동'은 환경정비, 복지도우미 등의 활동에 참여하며 ▲'역량활동'은 학습보조, 교육 등 어르신의 전문성과 연륜이 필요한 곳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공동체사업단'은 업종 소규모 매장 등을 공동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참여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2025년에는 주 5일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급식 보조 일자리 232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며, "더욱 많은 어르신이 참여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제341차 안전점검의 날 안전캠페인 실시

화재예방을 위한 겨울철 안전한 온열기구 사용 등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4일 강화군청 일원에서 제341차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안전총괄과 직원과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 강화군안전보안관, 강화군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인도변에 위치한 인근 점포를 돌며 겨울철 점포 앞 도로변 제설작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강화군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한 제설제(3kg)를 함께 배부했다.

이 외에도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행동요령과 안내수칙도 함께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을 맞아 온열기구 사용에 따른 안전 수칙 준수 등 화재 예방과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적극 동참을 통해 군민 모두가 안전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전점검의 날 안전캠페인

강화경찰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인천강화경찰서(총경 남규희)는 `24년 마지막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12.10(화) 갑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실시하였다.

강화서는 금년도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갑룡초 등 5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內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 시내권 중앙분리대를 증설, 강화여중 앞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등 보행자 중심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사고위험이 높은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등교시간대 교통순찰차 및 순찰차를 배치하여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하였고 하교시간대에는 26명의 아동안전지킴이분들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금일 갑룡초 앞에서 진행된 `24년 마지막 등굣길 캠페인에도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찰, 학교와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센터 등이 어김없이 함께 하였다.

남규희 강화경찰서장은 "올해 강화지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준 녹색어머니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강화경찰은 내년에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화경찰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2025년 말 경자구역 지정 목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산업부 자문회의 추진

경제자유구역 확대로 투자유치 영토 확장 및 강화남단 가치 재창조 기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위치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강화남단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안)'에 대한 자문 요청을 지난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첫 공식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자문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보완한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정식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수출액, 연구개발 인력 유입 등에서 국내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개발률은 90%에 육박해 다양한 산업분야의 투자 유치에 따라 기 조성된 첨단산업용지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강화군 화도면·길상면·양도면에 걸쳐 있는 강화 남단 추가 지정 대상지는 약 600만 평(20.26㎢)에 이른다. 청라국제도시(17.80㎢)보다도 넓다. 지난해 7월 용역을 착수해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며, 1단계 10.03㎢, 2단계 10.23㎢ 정도 면적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곳에 대규모 첨단 화훼 단지와 스마트팜, 종자연구센터 등이 들어서는 '그린바이오 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린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어 향후 국비 지원이나 관련 기업 투자 유치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린바이오 산업 역시 생명공학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전문인력, 연구개발역량, 농생명 자원, 항공물류시스템 등의 인프라가 연계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강화남단 지역이 최적지로 꼽힌다.

강화국제도시(가칭)에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연구개발단지, 스마트유통시스템 등이 복합된 첨단농업혁신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강화군의 농업은 콜드체인 물류를 통한 국외 수출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석 청장은 "강화남단 지역은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바로 연결되어 수출산업화를 위한 최적의 산업 입지"라며 "강화국제도시 개발을 통해 송도~영종~강화로 이어지는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MOU) 체결

인천시 40개 기관·단체와 협약 체결 / 박용철 군수, 강화 농특산물 우선 구매 요청

박용철 강화군수는 지난 1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주최하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협약식에는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장,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등 30여 공공기관과 인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7개 기관, 인천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3개 단체 등 총 40여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의 상황에서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지역기업과 판매처의 물품 품질 향상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지역 상품 우선 구매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제단체 및 소상공인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강화군 농특산물은 해풍 좋고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어, 맛과 질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강화 농특산물을 적극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또한,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 지역상품 우선구매 MOU 체결

박용철 강화군수, 지역상품 우선구매 MOU 체결

역사기고

아사녀여, 함허의 여인이여!

이경수

정년이[출처 tvN 홈페이지]

아사달과 아사녀

혹시, '정년이'를 보셨는지요. 1950년대 여성국극을 소재 삼아 만든 12부작 드라마입니다.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tvN에서 방영했는데요, 최고 시청률 16.5%를 찍었습니다. 주요 장면을 강화에서 촬영했답니다.

저는 '정년이'를 재밌게 봤어요. 특히 김태리(윤정년 역), 신예은(허영서 역) 등 출연 배우들이 대역 없이 직접 하는 판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소리꾼 같았습니다.

드라마 후반부 공연 장면에 아사달과 아사녀가 등장합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아사달과 아사녀! 줄거리가 뭐였더라, 궁금해서 《삼국유사》를 열었습니다. 어딨지?

안 나오네요. 제가 또 착각한 겁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연오랑과 세오녀 이야기를, 아사달과 아사녀로 여기고 있던 겁니다. 아사달과 아사녀는 《삼국유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아사달 전설이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고금창기》라는 낯선 책에 기록된 이야기의 원형이 이러합니다.

불국사를 창건할 때다. 당나라에서 온 석공이 탑을 쌓고 있다. 어느 날 석공의 누이동생인 아사녀가 오라버니를 만나러 왔다. 하지만 만나기는커녕, 절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신성한 불사 중에 여인을 들일 수 없다고 출입을 막은 것이다. 누군가 아사녀를 딱하게 여긴 사람이 일러준다. 여기서 십 리쯤 떨어진 곳에 연못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시오, 연못에 절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니 오라버니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오.

아사녀는 연못으로 갔다. 마치 거울처럼 불국사 창건 현장이 연못에 그대로 비쳤다. 그런데 탑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탑을 무영탑이라 부르게 되었다.

무영탑(無影塔)은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을 말합니다. 흔히 석가탑이라고 부르지요. 위 이야기에는 아사녀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석공의 누이입니다. 중국에서 온 석공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은 후대로 갈수록 다양한 이야기가 추가되고, 때로 생략되면서 변주하기 마련입니다. 'B사감과 러브레터'라는 소설 기억나시죠? 현진건 작품입니다. 그 현진건이 아사녀 이야기를 두루 모아 장편 소설을 씁니다. 동아일보 연재를 거쳐 《무영탑》이라는 책으로 나온 해가 1941년이에요.

현진건은 당나라에서 왔다는 이름 없는 석공을 부여 사람 아사달(阿斯　)로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누이동생 아사녀(阿斯女)를 아사달의 부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오라버니 만나러 온 누이 아사녀가, 부여에서 남편 아사달 만나러 온 부인 아사녀로 변화한 것입니다.

결국, 남편을 그리워하던 아사녀가 연못에 몸을 던지고, 뒤늦게 도착한 아사달 역시 목숨 버려 아내를 따르는 결말입니다. 현진건이 작명한 이름, 아사달의 달(　)은 '슬플 달' 자입니다. 이름 속에 주제를 담은 셈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사달의 한자를 대개 '阿斯達'로 씁니다.

소설 《무영탑》이 많이 읽히고, 1950년대와 1970년대에 이 소설을 저본으로 영화가 제작되면서, 부부로 설정된 아사달과 아사녀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꼅데기는 가라.
漢拏에서 白頭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제목부터 강렬한 신동엽(申東曄, 1930~1969)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 마지막 연입니다. 이 시에도 아사달과 아사녀가 등장합니다.

아사달 아사녀가
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시 속 '아사달 아사녀'는 순수한 우리 민족의 남성과 여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신동엽 시인이 시어(詩語)로 사랑했던 단어가 아사달과 아사녀입니다.

여인, 정수사에 오다

여인이 남자를 찾아오고, 서로 만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인이 목숨을 버리는, 이런 비슷한 구조의 전설이 강화에도 있습니다. 그 무대는 마리산 기슭 정수사!

고려 말 또는 조선 초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온 스님이 정수사에서 수행 중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스님을 찾아 정수사까지 왔습니다. 출가 전 부인일 수도 있고, 정인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멀리서 온 여인을, 스님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잠긴 법당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행이 깨질까 염려한 것 같아요. 법당 밖에서 스

정수사에 온 정희(tvN 나의 아저씨)

님을 갈구하는 여인, 그녀는 중국으로 돌아가자고 스님을 설득하러 온 게 아닐 겁니다.

사무치는 그리움 어쩔 수 없어, 그저 잠시 얼굴이라도 보고파 왔을 겁니다. 스님이 손 한번 꼬옥 잡아준다면, 그것만으로 힘을 얻어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꿈쩍도 안 합니다. 흐느끼던 여인, 산을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려나.

정수사 앞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승에서 끊어진 인연, 저승에서나마 다시 잇겠다는 생각이었을까요. 얼마 후 여인의 영혼이 바위가 되어 바다 위로 솟아오르니, 사람들이 '각시바위'라 불렀습니다. 각시바위는 지금도 여전히 거기 그렇게 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각종 강화 지도는 각시바위를 閣氏磯(각씨여)라고 표기했습니다.

매정한 스님은 누구신가. 함허대사입니다. 함허동천(涵虛洞天)의 그 함허입니다. 융통성 없는 듯한 남자입니다만, 그만큼 뜨겁게, 여전히,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나저나 여인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스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
여자는 돌계단 밑 차자꽃 아래
한참을 앉았다 일어서더니
오늘따라 엷은 가랑비 듣는 소리와
짝을 찾는 쑥국새 울음소리 가득한 산길을
휘청이며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멀어지는 여자의 젖은 어깨를 보며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

박규리의 시 '치자꽃 설화' 일부입니다. 마치 시인이 그때 그 자리에서 함허대사와 여인을 지켜보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작품입니다.

다시, 드라마 얘기를 좀 할게요.

'나의 아저씨'(2018)입니다. 거기 등장인물 가운데 정희(오나라 분)와 출가한 겸덕(박해준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스님 겸덕을 찾아 산속 절에 갑니다. 두 사람의 아픈 사연이 촉촉한 수채화처럼 그려집니다.

눈물 그렁그렁한 화면 속 정희를 보면서 함허대사 얘기랑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보니 어라? 해당 장면 촬영 장소가 바로 정수사였습니다. '나의 아저씨' 작가가 강화의 각시바위 전설을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설 속 함허가 사실은 실존 인물입니다. 중국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입니다. 함허대사(1376~1433)가 정수사에서 수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1424년(세종 6)쯤에 강화에 와서 길상산에 머물다가 이후 정수사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함허대사의 승탑(부도)이 정수사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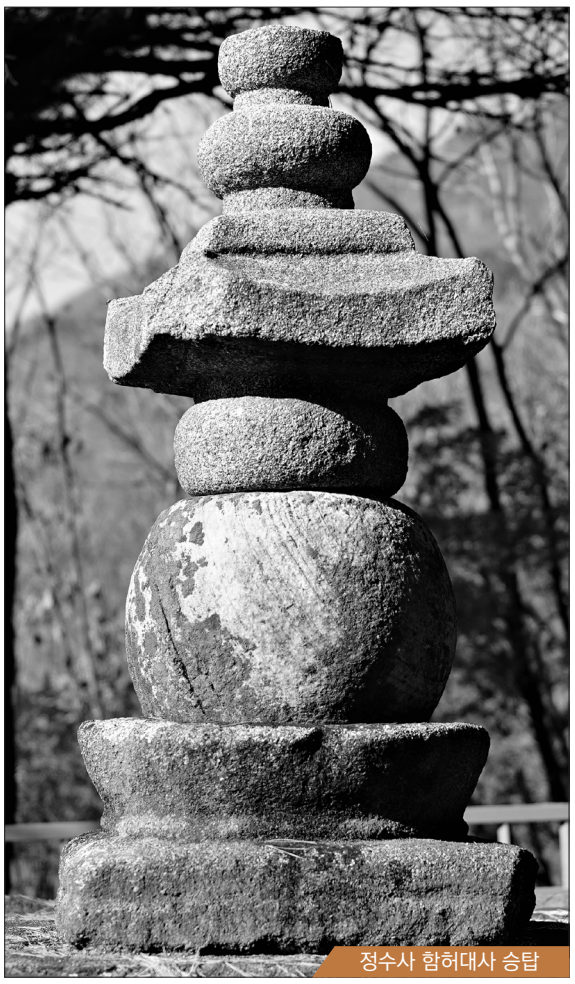
왜 조선 사람 함허가 중국 사람으로 전해졌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선 후기를 산 이규경(1788~1863)이라는 분이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합니다.

중국 명나라에 함허자(涵虛子)라는 유명한 도사가 있었다. 공교롭게 조선의 함허대사와 한자까지 똑같다. 함허대사의 고향이 충주(忠州)인데 충주를 중주(中州)라고도 불렀다. 중주가 중토(中土) 즉 중국으로 와전되면서 함허대사가 중국에서 온 것으로 잘못 전해진 것이리라.

지난여름, 징그럽게 더웠습니다. 그래도 정수사에 몇 번 갔습니다. 상사화 보러 갔습니다. 어디나 흔한 상사화인데 정수사까지 갈 필요 있나? 정수사 상사화는 노랑 꽃입니다. 아주 아주 귀한 거래요. 드디어 법당 오르는 계단 좌우 숲에 숨어 핀 노랑 상사화 보고야 말았습니다.

相思花! 서로 생각하는 꽃, 만날 수 없어 서로


정수사 함허대사 승탑

정수사 노랑 상사화

생각만 하는 꽃, 꽃말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죠. 잎과 꽃이 피는 때가 다르니, 잎은 꽃을 보지 못하고 꽃은 잎을 보지 못하네요.

함허대사와 여인의 슬픈 인연이 노랗게 피어난 것인가?

기고

비상 계엄 쇼크… 감정과 분노 조절 실패가 최악 불렀다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한밤중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을 충격과 불안,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잠들기 시작할 3일밤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닌 밤에 홍두깨라더니 이 무슨…. 국회에 군인이 난입하고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담을 넘는 등 한밤중 비상 상황이 벌어졌다. 비상계엄은 4일 새벽 4시 넘어 해제됐다. 국민들이 밤새 조마조마하며 지켜봐야 했던 ‘비상계엄 6시간’이었다. 영화인지 현실인지 구분조차 되지않았다.

대통령은 대체 왜 이같은 무모한 일을 저질렀을까. 지금같은 대명천지에 비상계엄이 성공한다고 어떻게 오판을 할 수가 있으며 이같은 최악의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까지 비상 계엄을 통해 무얼 얻으려 한것일까. 이미 많은 언론들이 계엄 선포 당시와 전후 상황에 대해 보도했으며 지금도 연일 책임 소재와 새로운 상황을 쏟아내고 있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계엄 선포 전에 요건과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회의가 열리는 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이 회의에서 대통령은 흥분 상태였고 심의를 마칠때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한 국무위원은 전했다. 한 언론은 “계엄 국무회의때 대통령 얼굴이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저 정도로 격한 상태면 아무도 못막는다라고 생각했다”는 장관의 말을 보도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은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경제와 외교에 큰 충격이 오고, 법적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을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크게 분노한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도 대통령은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분을 삭이지 못해 주변에서 말도 못꺼냈다고 한다.

비록 짧은 시간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화는 어느 정도 풀리고 자신이 원하던(?) 바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최악의 카드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은 많은 걸 잃었고 앞으로도 적지않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치 불안으로 주식 시장이 출렁대고 반도체 업종 회복도 기약할 수 없는 등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미 많은 외국 여행객들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거나 주저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 정상들이 한국 방문을 취소해 외교 및 통상 행위가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의 유명 경제지는 5100만 한국인들이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강화도라는 한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선택한 최악의 비상 계엄 카드는 강화군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바로 강화군정을 감정과 분노로 처리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절대로 그럴리 없겠지만 강화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 과장, 팀장, 실무자가 개인 감정이나 분노에 휩싸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그 여파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공무원도 사람이니 감정이 없을 수 없다.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는 협박성 민원부터 민원인들의 거친 언사와 하대하는 듯한 말투, 윗선이나 상급기관이 책임지지도 않을 것이면서 목소리만 높여 내리는 부당한 지시를 받다보면 뚜껑이 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럴 경우라도 감정이나 분노가 뒤범벅된 채 자신만의 판단과 결정으로 업무를 처리해선 안된다. 이때 바로 진정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와 행정은 끊임없는 타협의 산물이다. 정치에는 여와 야가 있으며 정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비판 감시하는 국회와 언론이 있다. 강화군에는 행정을 집행하는 군청과 공무원이 있으며 군정의 잘잘못을 가리는 군의회와 지역언론, 시민단체들이 있다. 이들이 각자 역할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 건설적인 비판을 주고받는 가운데 군정은 상호 양보와 조정 등으로 타협점을 찾고 집행되는 것이다. 이들 기관들이 강화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차차 알리도록 하겠다.

이제 현직 대통령은 탄핵이냐 하야냐의 갈림길에 섰다. 출국금지를 당하고 여차하면 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가적 비극이 아닐수 없다. 역사에서도 수많은 위정자들이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거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현실에서 한 국가 지도자가 감정과 분노 조절 실패로 남긴 나라의 혼란을 온몸으로 겪고 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듯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 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듯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듯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강화군, 연말 앞두고 ‘온기나눔’ 기부 릴레이

강화읍 유관단체, 풍물시장상인회 등 동참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강화군 낚시경영인협회(회장 최윤), 28일 사)전국한우협회(지부장 윤용성), 강화읍 유관단체 일동, 29일 가림팜 영농조합법인(대표 강형만) 및 ㈜고인돌(대표 이재석), 풍물시장상인회(대표 김낙원), 강화남산군립어린이집(원장 유세영), 길상면 초지성공회 장년회 등 지역사회 나눔을 위한 참여가 이어졌다.

가림팜, ㈜고인돌, 풍물시장 상인회에서 기탁한 백미는 관내 취약계층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되었으며, 사)전국한우협회에서 기부한 불고기는 읍·면 저소득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강화군 낚시경영인협회, 강화읍 유관단체, 강화남산군립어린이집과 길상면 초지성공회에서 기탁한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난방시설이 열악한 가구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문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부자들의 뜻을 반영해 필요한 곳에 도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들의 따듯한 정성이
강화를 밝힙니다!

강화군가족센터, 강화섬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포근한 겨울나기 시작

복지 사각지대에 겨울용품을 지원, 50가정을 직접 방문해 온정의 손길

강화군가족센터, 강화섬 포근한 겨울나기 나눔행사

강화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석)가 지난 9일, 강화섬 지역 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용품 배분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항만공사의 후원과 인천 사랑의 열매 지원으로 함께하는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겨울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섬마을 가족들의 생활환경 및 수요를 파악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겨울용품은 전기매트, 이불 세트, 머플러, 장갑, 쌀국수, 염화칼슘(제설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센터는 교동면(18가정), 삼산면(17가정), 서도면(15가정) 등 총 50가정을 직접 방문해 용품을 전달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반갑게 맞아주시는 취약계층에 정성껏 준비한 겨울용품과 따스한 마음도 전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며, "가족센터는 앞으로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군민들에게 유익함을 제공하는 가족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한 발 더 다가서겠다"고 전했다.

이 외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가족센터(☎032-932-0980)로 문의하면 된다.

해병대 제2사단, 따뜻한 손길로 취약계층에게 사랑을

해병대 제2사단 장병,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자원 봉사활동 실시

해병대 제2사단 장병들이 복지시설을 방문해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지원

해병대 제2사단 장병들이 복지시설을 방문해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지원

해병대 제 2사단(이하 '2사단') 장병들이 지난 11월 19일(화)과 22일(금) 각각 장애인 복지시설인 '예닮'과 어르신 요양시설 '강화 꽃동네 노인요양병원'을 방문해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노약자 · 장애인 등)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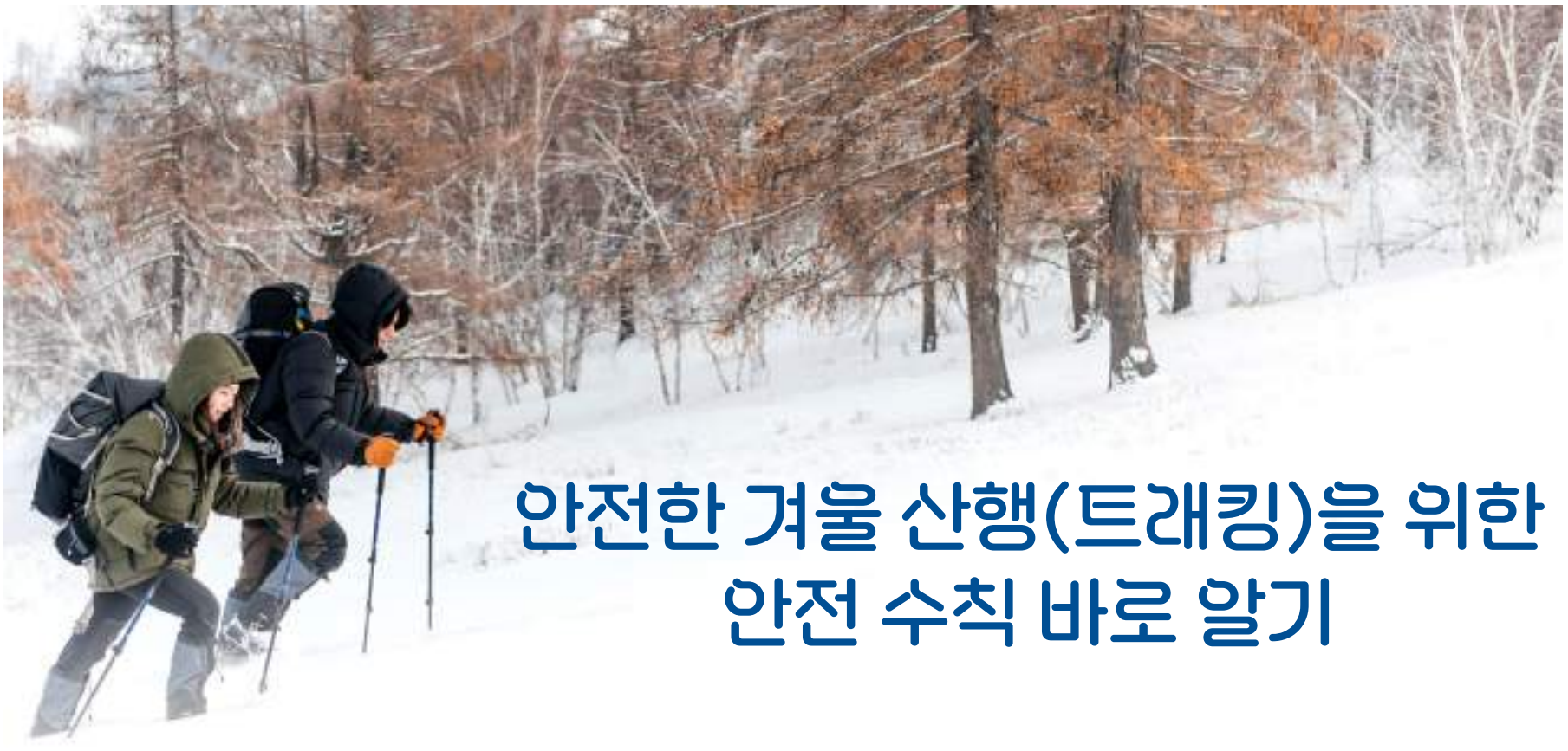
2사단 대대 장병 30여 명은 강화도에 위치한 장애인·노인 요양 복지시설을 찾아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이외에도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창고정리·먼지 제거, 생활공간을 청소하는 등 자원봉사까지 진행했다.

특히, 일상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도록 일일 말동무를 자처하며장애인·어르신들에게 따듯한 온정을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윤대기 병장(兵1296기)은 "날이 추워지는데, 복지센터 어머니들과 함께 김장하며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며, "군 생활을 하면서 이보다 뿌듯한 시간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훈 일병(兵1304기) 또한 "처음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과 웃음소리를 잊지 않고, 다음번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꽃동네 노인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시는 김금화 어르신은 "수많은 겨울을 지나왔지만, 해병대 장병들 덕분에 오랜만에 즐겁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했다."라며 "멋진 해병대 장병들이 내년에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 제2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선한 해병 양성 운동」을 지속하며 노인·청소년·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겨울 산행(트래킹)을 위한 안전 수칙 바로 알기

겨울 산행시 주의할 점, 체온 유지와 미끄럼 방지

겨울 산행에 있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사항은 바로 보온과 방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은 해발 100m씩 상승할 때마다 온도가 약 0.6℃가량 떨어지고 바람이 부는 강도도 더욱 심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땀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는 내의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땀에 젖기 쉬운 면 소재의 내복은 체온을 빼앗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또한 두꺼운 옷을 입기 보다 얇은 옷을 여러 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겹겹이 입어야 온도 조절이 쉽고, 옷 사이에 공기 층이 형성돼 보온 효과가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외투를 선택할 때에는 방한 소재와 방수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 산을 오르다 보면 등산화 속으로 눈이 들어가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이 젖지 않도록 방수 기능을 가진 등산화와 스패츠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스패츠는 발이 눈 속에 빠져도 신발, 양말, 바지 등이 젖지 않도록 해주고 동상을 예방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눈이 많이 내린 산을 오를 계획이라면 스패츠도 잊지 말고 준비하세요!

겨울 산은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걷기가 힘들고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이때 아이젠을 이용하면 눈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아이젠과 더불어 등산 스틱도 꼭 챙겨야 할 도구입니다.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게 중심이 분산돼 무릎을 보호할 수 있고 넘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자! 겨울 산행 필수 안전 수칙

겨울 산행을 계획할 때에는 개인의 체력에 맞은 탐방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한 코스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탐방로 등급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적합한 겨울 산행 코스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에 오를 차례겠죠? 등산 전에는 꼼꼼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 산행은 추위와 눈길로 인해 체력 소모가 큰 레포츠 중에 하나인데요, 충분한 준비운동은 경련이나 저림 등의 문제를 예방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 쉼터를 활용해 적절히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한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일조 시간이 짧고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몰 2시간 전에는 하산을 마쳐야 하는데요, 홀로 산행해 나서는 것보다는 3인 이상이 동행해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상황 시 대처법

산행 중 예상하지 못했던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최대한 빨리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이동을 자제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을 위해 등산로 곳곳에 국가지점 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등반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상 연락망을 사전에 확보해 조난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설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레포츠, 겨울 산행! 오늘 소개해드린 겨울 산행의 필수 준비물과 안전 수칙을 꼼꼼히 숙지하여 아름다운 겨울의 절경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보온성있는 의상, 장비 챙겨입기

체력보충, 체온유지해 줄 간식과 따뜻한 차 챙기기

눈 덮인 등산로에서는 발자국을 따라 이동하기

대설주의보시 산행 통제

정관장 강화점

032) 933.2304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5 1층 대표 김 형 식 M. 010.5313.3368

月光산업개발

(토목·건축·시공상담)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5 3층

M. 010 2432 3872

T. 032) 934-7299

짱금이네 반찬

각종 김치류, 나물류, 밑반찬

냉장보관·예약/주문가능

010-2842-9111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205-5번지 (중앙시장 A동 지하상가)

계좌 : 농협 302-2842-9111-01 배숙영

today ganghwa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투데이 5천부 제작비 중 원고료(2인), DM제작 우편발송료(1천부), 일반배송비(1천부)만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되며, 인쇄비를 포함한 모든 부가비용은 자체제작입니다.